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 20개 사업 대선공약 제안

### 市, AI산업 육성·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핵심 과제 지정 빛고을스마트메가시티 조성·친환경차 등 미래산업 육성 방침

광주시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공약 8대 부문, 20개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8대 분야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 ▲지역 균형 발전과 광역경제권 구축 ▲미래 지역 전략산업 고도화 기반 확대 ▲초 지능형 헬스 테크 시티 인프라 마련 ▲문화수도 광주 ▲그린 뉴딜 도시 모델 구현 ▲민주·인권·평화 도시 구현이다.

20개 중점사업 가운데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광주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조기 착공, 초광역 국가 고차기장 연구소 구축을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했다.

또한 광주와 인근 전남 시·군을 아우르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친환경 차·첨단 의료·신재생 에너지 등도 미래 100년을 책임질 전략산업 육성에 방침을 두고 선정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광주 아시아 예술 전용 극장 건립을 통한 공연 예술 인프라 확보 등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완성도 증진 사업에 포함됐다.

인권 도시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옛 광주교도소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린뉴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광주 AI, 전남·북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해 탄소중립 사회 초석을 마련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호남 에너지 밸리(RE300)' 구축과 광주천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도 함께 포함됐다.

광주시는 이 같은 20개 중점사업을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제시하고, 최종 대선 후보 공약과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힘을 기울였다.

앞서 1차 대선공약으로 12대 공약과제와 75개 세부사업을 확정된 광주시는 전국 각 지자체를 통틀어 선제적으로 광주발전 사업들을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제시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광주전남연구원과 공약과제 발굴 사전 기획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교수, 유관기관, 광주전남연구원 및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력과정을 거쳐 공약을 구체화했다.

광주시는 다음주에 확정된 공약안을 발표, 광주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을 제시해 대선 경선후보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종형기자



시의회 '공감스튜디오' 개소

광주시의회는 1일 오전 의회 2층에서 김용집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와 시민간의 소통 역할을 하게 될 '공감스튜디오' 개소를 가졌다. (광주시의회 제공)

## 김익주 광주시의원 “어등산 사업 공공 개발해야”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1일 지지부진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더는 어등산 개발사업이 표류해서는 안 된다. 시나 사업자가 오직 공공성과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사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발 주체에 대해 시와 민간기업의 공동 개발 방식이 다수였다는 시의회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법령을 준수하고 공모지침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공동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최근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 건설에 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직접 공공개발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천500㎡에 유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여러 차례 협약과 파기가 이어지는 동안 골프장만 들어섰을 뿐 진척이 없다. /이종형기자

## 완도 당목항·영광 향화도항 국가어항 지정

#### 내년부터 국비 851억 투입 정박시설 등 현대화 추진

전남도는 1일 “완도 당목항과 영광 향화도항이 충남 태안 영목항과 함께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어항(漁港)은 어획물 인양·위판·출어 준비·어선 피난 등을 위한 항구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등으로 구분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개정된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따라 어선 이용 빈도, 어항 방문객 수, 배후 인구 규모 등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으로 인정된 전남 2개소를 포함해 전국 3개소를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했다.

완도 당목항과 영광 향화도항은 그동안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기반시설이 미비해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불편이 컸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규모 있는 투자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어항 현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어선 정박 등 전통적 수산업 지원 기능과 함께 해양관광 및 레저 기능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완도 당목항은 40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해권 수산 거점이자 인근 급일도, 평일도를 잇는 해상교통·관광 거점어항으로 개발한다.

영광 향화도항은 4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남해권 대외어항이자 인근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를 잇는 해상교통·관광 거점어항으로 개발한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당목항, 향화도항을 해상교통과 수산물 유통 거점으로 개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2019년 지정해 시설계획 중인 고흥 오천항과 신안 송도항도 사업을 신속히 착수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전남도의회 제2대 대변인에 조옥현 의원

#### “의회-도민간 가교역할 충실히 수행”

전남도의회는 1일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사진 가운데)을 제2대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조 의원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변인으로서 도의회 주요 시책과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주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전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아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대변인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 창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코로나19 등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도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제1대 대변인으로 도의회의 홍보 및 소통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펼친 최선국 의원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쌓아온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민 소통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 “국도 23호선 함평 신광-영광 4차로 확·포장을”

#### ‘축구건의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남도의회가 국도 23호선 함평 신광-영광 구간 4차로 확장·포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국도 23호선 함평 신광-영광 구간 4차로 확·포장 촉구건의안’이 1일 제356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구간은 서해안고속도로와 교차 및 평행하게 달리며 호남 서해안지역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함평-고창 구간 중 유일하게 2차로로 남아있는 곳이다. 이에 도로병목, 도로협소, 시야불량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함평 신광-영광 구간이 4차로 확·

포장시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물류비용을 절감해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평·영광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돼 전남 서부권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한빛원전 방사능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과 대규모 주민 대피 등의 효율적인 주민보호 조치를 위한 대피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세일 의원은 “함평 신광-영광 구간의 확포장요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지역민들의 민심에 귀 기울여 하루빨리 확·포장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건설기계 세계 1위를 향해 도약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 GRC (Global R&D Center)  
2022년 경기도 판교C 인근에 준공 예정인 현대중공업그룹의 기술경영 컨트롤타워로 5천여 명의 기술인력과 함께 그룹의 새로운 50년을 책임질 성장동력 역할 수행

현대중공업이 글로벌 No.1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할 소중한 인재를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홈페이지 참조 recruit.hhi.co.kr)

▲ 현대중공업지주 ▲ KSOE 한국조선해양 ▲ 현대중공업 ▲ 현대미모조선 ▲ 현대삼호중공업 ▲ 현대오일뱅크 ▲ 현대일렉트릭 ▲ 현대건설기계